

2005 한국국제축산박람회 이모저모

2005 한국국제축산박람회

얼마 전 막을 내린 2005한국국제축산박람회(KISTOCK 2005)는 한국축산업의 저력과 무한한 가능성을 한눈에 보여준 대회였다.

‘깨끗한 환경과 안전한 축산물’을 주제로 지난 8월31일부터 9월2일까지 3일간 대전무역전시관(KOTEX)과 엑스포과학공원에서 개최된 이번 대회에는 15개국 2백30여개 업체에서 6백개 부스가 참가했으며 13만명 이상이 박람회장을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시업체나 참관객수에 있어서 국내 농업부문 박람회 사상 최대규모로 기록되면서 전세계 유명박람회를 무색케 하는 것으로 자신이 종사하고 있는 산업에 대한 국내 축산인들의 관심과 의지를 반영한 결과가 아닐 수 없다.

특히 15개국 2백여명의 바이어를 포함해 공식집계된 외국인 참관객만 1천여명에 달하는 등 해외축산업계에서도 그 어느 때 보다 높은 관심을 보임으로써 명실상부한 국제박람회로 발돋움하는 원년이 됐다는 분석.

여기에 국내 박람회에서는 처음으로 시도된 중축전시·경매행사는 물론 오리고기 등 국내산 축산물을 이용한 각종 시식회 및 학술대회와 풍성한 이벤트에 이르기까지 볼거리와 먹거리, 즐

길거리 모두를 만족시키는 ‘축산인의 큰잔치’로서 자리매김한 것으로 평가됐다.

따라서 끊임없는 생산성 향상노력은 기본이고 그 위에 전세계적인 화두로 떠오른 ‘안전한 축산물 생산’에 ‘친환경축산업 실현’까지 요구받고 있는 게 국내 축산업계의 현실이기에 이번 박람회가 던져준 파급효과는 적지 않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 세계적 트렌드를 한눈에

‘박람회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전시행사는 로봇착유기와 인큐베이터 등 신기술이나 생명공학이 접목된 최첨단 제품은 물론 기존기능과 형태가 한차원 업그레이드된 제품에 이르기까지 전세계 축산관련 기업에서 출품한 수많은 제품들이 한자리에 집결, 자용을 겨뤘다.

무엇보다 소비자 중심의 축산업 실현을 가능케 하는 각종 친환경제품이 대거 선보이면서 모두 3개관으로 이뤄진 전시회장은 박람회기간 내내 ‘인산인해’를 이루기도 했다.

이 중 가장 많은 1백5개 업체 3백37개 부스(67.9%)가 참여한 축산기자재의 경우 정밀성과

내구성 강화는 물론 지금까지는 그다지 중요시 되지 않았던 소음문제나 외관까지 대폭 개선된 제품들이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

특히 축산분뇨처리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듯 수분조절재를 사용치 않고 축분에서 고액분리에 의한 함수율 조절을 통해 발효퇴비를 제조하는 자원절약형 제품이나 액비탱크 및 폭기제품 등은 참관객들의 발길을 붙잡기에 충분했다.

다만 양계부문 기자재의 경우 부화율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부화기나 센서부착을 통해 모터의 과열을 방지하는 환기팬 등 신제품이 일부 눈에 띄기도 했으나 전반적으로 지난 대회에서 크게 변화된 것이 없다는 평가를 받아 아쉬움을 남기기도 했다.

한편 배합사료 업계는 자연과 환경, 인간을 생각하는 위생과 안전성에 전시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를 위해 저마다 자사제품의 안전성을 부각시키는 컨셉을 제시하며 ‘축산인과 동반자’로서의 인식확대에 주력해 참관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은 가운데 항생제 대체제나 면역증강제 등을 내세운 단미사료업체들의 활약도 그 어느 때 보다 두드러진 것으로 분석됐다.

동물약품업계 역시 지금까지 어느 박람회 보다 많은 15개사가 참가, 브랜드 인지도 제고에 나서 나름대로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 풍성한 부대행사

하지만 한국국제축산박람회가 여타 외국 박람회와 차별화되는 것은 바로 전시행사 외에 또 다른 즐거움이 제공된다는 점일 것이다.

이중 가장 눈에 띈 행사가 바로 종축전시 및 경매, 박람회 기간동안 1만명 이상이 다녀간 종돈전시장의 경우 우수종돈의 기준제시와 함께 국내산 종돈의 우수성을 해외에 알리는 절호의 기회가 됐다는 평가. 젓소전시행사에서는 관람객들이 직접 착유하는 기회도 제공함으로써 참관객들에게 또다른 재미를 선사했으며 한우송아지 경매장의 경우 송아지 한마리가 6백10만원의 낙찰가를 기록하는 등 우수씨앗을 확보하려는 한우농가들의 열기로 후끈 달아오르기도 했다. 평소 쉽게 접할 수 없는 재래닭 및 특수가금 20쌍의 전시행사는 가금산업에 대한 관심과 이미지를 새롭게 하는데 도움이 되기도 했다.

한편 박람회가 개최국의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는 바로 최신기술은 물론 세계적인 흐름과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박람회 역시 국내외 석학과 전문가들이 대거 초빙돼 각 축종별 산업별 주요 현안과 대책을 모색하는 ‘교류의 장’으로 부족함이 없었다. 더욱이 각 세미나장은 과거 박람회 때와는 달리 자리를 가득 메운 축산인들이 시종 진지한 모습으로 참관, 한층 성숙한 세미나문화를 보여 주었다는 평가.

먹는 즐거움 역시 빼놓을 수 없었다. 축산박람회인 만큼 각 생산자단체를 중심으로 푸짐하고 다양한 요리가 시식회를 통해 무료로 제공됐다.

특히 한국오리협회의 오리고기 요리시식 행사장에는 박람회 기간 내내 참관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등 큰 호응을 받아 오리육에 대한 우수성 홍보는 물론 소비자변화의 가능성까지 확인하는 좋은 기회가 된 것으로 분석됐다.

■ 명실상부한 국제행사로 발돋움

이처럼 KISTOCK 2005가 성공적으로 치러진 데는 주최측의 공격적인 홍보전략과 함께 범축산업계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가 뒷받침되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준비단계부터 일관적으로 표방해온 ‘축산전문 비즈니스 박람회’가 적중했다는 게 전반적인 분석이다.

개최장소 역시 서울의 코엑스에서 벗어나 전국 축산인들의 접근이 용이한 대전으로 옮긴 점도 이번 대회 성공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일부 문제점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민관 합동으로 방역시스템을 구축, 박람회 참관 외국바이어들에 대한 사전등록과 방역홍보는 물론 출품 모든 종축의 사전검사 및 사후도축처리와 관리, 철저한 출입차량 소독으로 질병전파의 가능성을 최소화하는데 만전을 기함으로써 ‘방역박람회’로서의 면모를 갖추었다는 평가.

반면 전시장과 부대시설 미비 등 부족한 전시 인프라와 주최측의 경험 및 전문성 결여 등으로

인해 전시업체와 참관객 모두 적지않은 불편함을 겪는 오점을 남겼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넓은 면적에 박람회 전시관이 1관, 2관, 3관으로 널리 퍼져 있을 뿐 만 아니라 세미나실도 각기 달라 참관객들이 불편을 겪기도 했으며 일부 전시관은 아예 들러보지도 못한 참관객도 속출했다.

특히 에어돔인 2관과 야외에 설치된 3관의 경우 냉방이 제대로 되지 않아 짐통을 방불케하는 환경이 마지막날까지 지속, 전시참가업체의 강력한 항의와 반발이 끊이지 했다.

따라서 명실상부한 국제행사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보다 성숙한 대회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현행 공동주최 5개 단체(대한양돈협회, 한국낙농육우협회, 대한양계협회, 전국한우협회, 한국축산시설환경기계협회)의 순번제 개최형식을 벗어나 전문성을 갖춘 상설기구를 설치, 충분한 준비기간과 예산확보를 통해 보다 체계적인 박람회 개최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